



金井議政

제2015-10호

2015년 10월 1일(목)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 의회 제237회 임시회

■ 기 간 : 2015. 9. 2(수) ~ 9. 8(화) ▶7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등

■ 참 석 : 의원 전원

■ 의안 의결결과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8.24	2015.9.8	수정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 용	비 고
9/1(화) 17:00	·금정여성합창단 격려 방문	의장
9/2(수) 11:00	·제23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9/2(수) 11:30	·9월 의원 정례간담회	의원
9/2(수) 12:00	·구 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의장
9/2(수) 16:00	·노포마을회관 개소식	의원
9/3(목) 10:00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검토	의원
9/4(금) 09:00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의원
9/4(금) 10:00	·주민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의원
9/6(일) 09:00	·제27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개회식	의원
9/6(일) 11:30	·제5회 구청장기 볼링대회 개회식	의원
9/7(월) 10:00	·제237회 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의원
9/8(화) 11:00	·제237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9/10(목) 11:30	·전남 영암군의의회 방문	의원
9/11(금) 19:00	·2015 부산국제청년문화박람회 개막식	의원
9/12(토) 10:00	·스마일 나눔 걷기대회	의원
9/22(화) 12:00	·중국 북경시 창평구 방문단 내방	의원
9/23(수) 14:00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금정경찰서 방문	의원
9/24(목) 12:00	·교육감과 구 군 의회 의장 오찬간담회	의장

주요 의정 활동

■ 제237회 임시회 개최 및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제237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홍완표의장은 제1차 본회의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을 격려하였으며, 우리구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설치사업이 정부 3.0 생애주기 서비스 공모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은데 대해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부산 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부산 산복도로 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우리구 서금사지역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접목할 점 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다녀왔다.



■ 전남 영암군의회 대표단 방문 및 우호교류방안 논의

▷ 지난 9월 10일 전남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장을 비롯한 열 다섯 명의 의원 및 수행 직원들이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의정활동 등 관심사항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영암군의회에서는 지역특산물인 고구마와 무화과를 준비하여 왔고, 우리구의회에서는 지역 토산주인 산성막걸리를 준비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서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나누며 향후 영호남 우호교류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 중국 북경시 창평구 대표단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난 9월 22일 우리구와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북경시 창평구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라 환영식을 겸한 상호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서 짬예요유 창평구 인민정부 구장을 비롯한 10명의 대표단과 우리구 홍완표 의장을 비롯한 전체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환영식에서 양 구간 우호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 추석맞이 관내 복지시설 등 성품 전달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9월 23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과 금정경찰서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관내 복지시설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 등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삼백만원 상당의 쌀, 국수,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 의원 발의 조례 사항

①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정종민의원
(서1동, 부곡1·4동-새정치민주연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은 행정 간소화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 뒤에 수탁자의 이익 추구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와 공공성 훼손이 수반된다. 이에 금정구청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회의 동의권 등을 통한 사전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관련 행정 절차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사무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 기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수탁계약 체결수탁자에 대한 지위 감독에 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②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발의자 : 박종성의원
(장전1·2·3동, 구서1동, 금성동-새정치민주연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 지원계획의 수립,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주요사업,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발의자 : 박인영의원
(남산동, 구서2동-새정치민주연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차량 통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 관리,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정종민의원
(서1동, 부곡1·4동-새정치민주연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정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보행안전 확보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실행함으로써 금정구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개선 사업 추진,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보행환경 개선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5. 9. 2.)



조준영 의원

(서2·3동, 금사동-새정치민주연합)

**제목 : 회동고가 하부, 걷고 머물고 싶은 사람
중심 재생이 시급하다.**

반갑습니다.

금사동, 서2동, 서3동 새정치민주연합
조준영의원입니다.

저는 회동고가 하부공간 환경개선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여러분과 공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의 편익과 공간활용도, 시간적 경제성을 위해 건설된 도시고속도로는 고가하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비용으로 합니다. 밝고 쾌적하게 정비된 타구 고가하부와 달리 공단이라 늘 밀리고, 외면당한 회동고가 하부공간은 금사동 전체를 슬럼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고가와 하부공간 재생 사업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생 계획인 “서울역7017” 프로젝트는 그 방향을 ‘걷고, 머무르고, 연결하는 사람길’로 정했습니다. 행정단위나 예산 규모로는 금정구를 서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생 유형이 근린재생형이든, 경제기반형이든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쇠퇴한 공단으로만 인식되는 금사동에도 주민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동굴다리 해 놓은 거 보면, 우리는 ‘없는’

사람 같다. 공단에 살면 금정구민도, 부산시민도 아인기라.” 주민들이 금정구라는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심각합니다. 점점 열악해져서 이제는 참기 힘들다고 ‘귀 기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목소리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동고가 하부 모습입니다.

대형차가 은폐막이 돼 주민들은 한 낮에도 지나기가 무섭다 토로합니다.

다행히 올해 말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이동을 하겠지만, 통근버스와 일부 화물차는 남을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대형차량 주차문제를 시설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대형차량의 경우 대수 제한, 공간배치를 안전하게 다시 해야 합니다.

10여개의 조명만으론 부족합니다. 여성친화도시 금정구!

회동고가 하부공간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금정구의 얘기입니까? 시와 협의해 체계적인 조명확보계획을 세워서 경관 상으로도 보기 좋고, 안전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합니다.

일방통행로인 고가하부는 버스 승하차 승객이 반드시 가로질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없습니다. 매일 수많은 주민이 예술지구P 앞 정류장부터 주택가 진입까지 차도로 걸어 다닙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인사교통사고 발생 지점을 살펴보니,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주차장 사이 도로와 파크랜드 앞 6거리의 교차지점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화살표가 주민의 보행동선입니다. 차도를 따라 길을 건널 수밖에 없는 고가 하부에는 6거리에 21개 동선으로 차량이 교행합니다. 그 사이를 곡예 하듯 걸어야 합니다. 또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 시야확보도 어렵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매일 걸을 수밖에 없는 곳, 회동고가 하부공간의 실상입니다.

금사공단은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28개 대상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시가 알아서 해주겠지’ 할 일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금사공단 재생을 “장기 검토대상사업”이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정부예산 수백억을 부산역일원에 투입하고 있어 당분간은 예산확보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금정구가 서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상지도 뉴타운 해제지역입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도, 예산도 없기 때문에 주민이 계속 속수무책으로 감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당부드릴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 전역 대상 도시재생마스터플랜에는 회동고가 하부공간 재생에 대한 내용을 실행을 전제로 반드시 포함하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여성친화도시사업비 등 국시비와 필요하다면 구비도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둘러 조치 하길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주행 동선 개선, 사각지대 없는 충분한 조도 확보, 활기를 불어넣는 교각 도색, 옹벽 등에 녹지 조성, 우범화 조장 불법컨테이너 철거,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단속, 대형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우범화 대책이 우선 조치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집행부는 부산시설공단에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지역환원사업 강화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저는 시설공단에 ‘주차장 수입 중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에 연간 얼마를 환원했는가’라고 질의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추정되는 민간위탁금은 연 1억원에 육박하는데, 영업을 위한 단순수선유지비로 3백만원을 쓴 게 다입니다.

환경 낙후의 원인자임에도, 본의원의 교각 도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 책임이 있지, 환경개선은 구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회신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의 고통은 무시하고 이익이 되는 영업만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발언시간제한으로)

넷째, 장기적으로는 금정구가 주도적이고 끈질기게 부산시에 주차장 폐지문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 정비로는 다시 슬럼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 높은 공단을 위해서 이곳을 사람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기반시설로 재생하자고 시를 설득하십시오.

회동굴다리라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은 금사동 주민들이 다시, 금정구 발전의 핵심동력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9. 8.)



김호숙 의원

(장전 1·2·3동, 구서1동, 금성동-새누리당)

제목 : 공익시설을 이렇게 뒤도 되는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원정희 금정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생활환경이 자랑스러울 만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한 번 살고 싶은 고장이라 생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잘 보아 주십시오. 금정구는 관내가 거의 저런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는 10월까지의 기상이변 등으로 그 어떤 태풍이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재난피해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도로 전봇대에 무질서하게 우후죽순처럼 시설된 “한전 전기선, 방송 케이블, 통신선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미관은 물론 안전문제가 크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하면, 이런 전봇대에 열기설기 엉켜 있는 보기 흉한 전선들과 건물에 위험하게 밀착되어 붙어 있는 변압기 등 교통 흐름에 방해되게 세워져 있는 전봇대 등은 공익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이 우리 부산의 관문 금정구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따른 ‘지하 매설 등은 직접 금정구가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금정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이 방치되면 언젠가는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시설 등은 소관이 전기를 관리하는 한국전력, 전화선을 관리하는 전화국, 방송케이블을 관리하는 업체 등이라 구청의 손길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금정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금정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은 당연히 우리 금정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손 놓고 강 건너 불 보듯,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것은 주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소관 문제를 따지면 무책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사항을 우리 구청이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책임유무를 따지면 해결방안이 막연합니다. 그러니 금정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에 전봇대 전주에 대한 설치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전력, 케이블 업체 등 통신업체는 물론 소방서, 경찰서와 협력하여 보기 흉하고 위험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가오는 올해 기상 예보를 보면 예상치 못한 태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시설물, 다시 말해 전봇대 등에 미관을 해치는 전선 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9. 8.)



박인영 의원
(남산동, 구서2동-새정치민주연합)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더는 미루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지난 8월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합차에 치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점은 두실초등학교부터 100여m 구서 초등학교로부터 250여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8월31일 사상구에서도 학교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물론 구청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신호기 설치 과속단속 안전 표지의 설치는 경찰, 교통안전의 지도는 학교와 가정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 책임을 묻고 잘 잘못을 가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두 아이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고 앞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입니다. 8월5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점검 결과를 보면 노면 표시가 퇴색하거나 안전 표지 속도 저감시설 중앙분리대 등의 안전 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부터 조성되어 총 52개소에 이릅니다. 설치가 10년이 지나 안전표지 등이 낡은 곳이 당연히 많습니다. 사고가 난 두실초등학교 앞 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퇴색되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11일부터 28일까지 금정경찰서와 금정구청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안전표지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꼭 필요한 안전시설의 보완이 시급한 곳 또한 상당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점검 보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국비의 전체 규모는 2011년 745억 2012년 412억 2013년 375억 2014년과 2015년에는 90억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에 1억9800만원이던 금정구의 국비지원액이 2015년에는 불과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6년 지역교통안전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공문에 따르면 국비지원 대상 사업에서 기존의 보호구역 내 유지보수사업은 제외됩니다. 노후표지판 노면보수 등은 자체 예산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올 2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는 5월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송을 보급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민안전처는 7월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은 2015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지난 9월1일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예, 캠페인도 좋고 합동점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안전시설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 못하는 상황에서 무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컸던 사업인 만큼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비만 기다리면서 사업 추진을 미루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의 위험이 크고 급박합니다.

국비 안 주면 구비로 합시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먼저 지난 합동결과를 기동으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각자 여건에 맞는 안전 시설의 보수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결단합시다.

다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시다.

우선 어르신들의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하교 시간으로 옮깁시다. 금정구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80여명의 어르신이 등교시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 학부모 및 학교 자체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8시 사이에 78.9% 2014년에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36.7%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왕 하는 사업 사업 시간 조정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금정구의회는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발연 예산확보와 좋은 시책 도입을 위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